

2023년 12월 31일 “아들의 진정한 의존성”(눅 2:41-52)

본문은 예수님이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가져야 할 참 의존성에 대해 보여줍니다.

[1] 사람은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합니다.

예: 부부나 친구관계 -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인격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 때 건강하고 적절한 의존(도움을 주고 받음)은 바람직하며 이것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의존은 문제가 됩니다:

- * 상대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
- * 상대의 행복과 불행에 지배당함 (상대를 감시하고 조정하기 쉬움)

어린 나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나친 의존성이 생기면, 자신과 관계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속적 의존성(codependence)**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상호의존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인생의 단계마다 자율적/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종속적 의존성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당신’ 때문에 라는 인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남에게 의존하고 내게 의존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격의 장애, 관계 부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의존성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로 결단할 때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사회에서 12 세는 아이의 의존성에서 어른의 자율성으로의 전환을 갖는 때로서 성인의 문턱에 들어서는 나이입니다.

본문 속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질책(48 절)과 아들의 답변(49 절)은 갈등을 빚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부모를 떠나 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공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유아적 죄책감을 거부:

12 살에 예수님은 말씀을 향하라는 중대하고 본질적인 내면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부모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후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폴 투르니에, ‘예수님은 곧 어른의 법을 취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했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부모의 요구에 매이고 부모에게 의지하여 그러한 내면의 부르심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진짜 죄였다’

2. 이런 전환의 시기에 따르는 갈등과 부조화를 인정해야 성장한다:

본문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만일 이 갈등이 계속되어 부모와 대립 상태에 머물든지, 또는, 복종의 상태로 귀환해서 끝난다면 아들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참 의지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자식의 관계가 새로운 성숙의 차원으로 변화됨을 뜻합니다.

(폭넓은 일반적 의미) 성인으로서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은, 부모와 이런 갈등을 넘어서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도덕, 통념, 이념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거부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될 때 참 용기를 얻어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51 절 후.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내 아들은 내가 좋다고 하는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앞으로 예의주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 의존성을 배우는 길이 모두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종속적인 의존성과 의존성 배타의식은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신과 상대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상호적 의존성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음성에 내면의 귀를 기울이실 때 바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인격의 의존성 문제는 사실 복잡한 주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의존성에 관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2.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기도와 묵상이나 생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